

사계절 자연의 색을 입히는 황토명가 김명희 대표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을 생각하는 천연염색! 자연에서 얻은 색을 생활용품에 곁게 입히고 있는 황토명가(담양군 용면 두장리 소재) 김명희 대표를 대나무의 고향 담양에서 만났다.

전통복식에서 찾은 천연염색의 세계

김명희 대표(이하 김 대표)는 약 20년전 전통복식을 공부하던 중 복식에 사용되는 염색에 관심을 갖게 되어 천연염색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천연염색을 이용하여 문양을 넣은 백당의를 가지고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은 후 천연염색에 더 몰두하기 시작해 현재 황토, 쪽, 감 등을 이용한 이불, 베게, 의류 등의 천연염색 섬유제품을 고향인 담양에서 제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황토명가

특히 대나무의 우수한 기능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여 '대나무 숲을 이용한 염료생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염색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제품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다.

수공예 작가에서 경영자로, 의복에서 생활용품으로

2000년에 창업한 김 대표는 창업초창기 직접 염색한 원단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지만 잘 팔리지 않아 사업을 지속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소비자가 천연염색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끝에 가격을 낮추고 쉽게 쓸 수 있는 생활용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여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넓히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해봐야 우수성을 알 수 있는게 천연염색 제품이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www.hwangtodaega.com)을 통해서 홍보·판매하고 있다.

마케팅의 어려움을 넘어선 길을 가고자

10년이 넘게 경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고정적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마케팅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이라고 말하는 김 대표는 처음부터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창업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신에 관한 이력을 쌓아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단기기간보다 장기계획하에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신도 천연염색을 통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려 수출을 통한 제품판매를 확대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황토명가' 공방 내부〉

황토명가 주요연혁

- 2012.06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지정(농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 2012.02 뉴욕섬유전시전 참가
- 2010.10 제9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 2009.06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2008.09 공예현장체험 지정학습장 지정(제0023호)
- 2007.11 전국공예대전 특선
- 2007.06 제3회 유럽 수출박람회 참가(독일)
- 2006.09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협약 체결(전남대학교)
- 2005.06 대나무 숲 천연염색 특허등록(제0696498호)
- 2003.03 품질경영인증 ISO9001 획득
- 2003.12 신지식인 인증(행정자치부) 국무총리 표창
- 2000.11 황토명가 설립